

광주FC 4경기 연속 무패 도전

내일 제주 원정 K리그 15R…전남은 강원 FC와 대결

광주 FC가 제주 원정에 나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광주가 25일 오후 3시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2011 K리그 15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지난주 광주는 안방에서 열린 전남과의 '엘로 더비'에서 골 친 뒤 속에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3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제주와 전반기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된 광주는 '선제골'을 펼쳤던 전략으로 세웠다.

광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기록한 6경기에서 5승을 가져오며 승점 15점을 가져왔다. 3경기에서 패를 기록하지 않은 광주는 캡틴

박기동과 특급 융병 주양파울로를 내세워 제주 골문을 공략할 계획이다.

수비도 안정세다. 수비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6경기 광주 평균 실점은 0.5점으로 떨어졌다.

제주는 6승4무4패로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신영록의 사고와 ACL 조별 리그 탈락 등으로 분위기가 침체됐다.

최근 4경기에서 1승1무2패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3-2로 역전패를 당했다.

젊은 패기를 앞세운 광주는 하락세의 제주를 초반부터 몰아붙이겠다는 각오다. 또

광주가 공격축구를 펼치는 팀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제주를 상대로 맞불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민희 감독은 "선수들 몸 상태는 훌륭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첫 원정이라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전반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승점을 쟁겨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26일 오후 7시 광주전용구장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승점사냥을 한다. 메디컬 테스트로 지동원의 K리그 고별전이 무산됐지만 전남은 흡에서 6번째 승리를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



"네이마르, 메시 능가할 선수" vs "교양없고 실력 의문"

펠레-마라도나 또 '입씨름'



펠레(70)와 디에고 마라도나(51) 간의 입씨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남미 축구의 양대 산맥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볼세출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펠레가 축구황제라면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가 낳은 축구영웅이다.

이런 두 사람이 최근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24·FC바르셀로나)와 '제2의 펠레'로 불리며 브라질 축구의 새 별로 떠오른 네이마르(19·산토스)에 대한 평가는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펠레가 네이마르를 입에 친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 언쟁의 발단이 됐다. 펠레는 지난 14일 브라질 리디오 글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메시

와 네이마르를 현 상태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이마르는 메시를 능가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마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유럽 리그로 이적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산토스에서 뛰면서도 메시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토스에서 활동한 펠레가 지금까지 축구황제로 군림하는 사실을 빗댄 말이다.

이에 대해 마라도나는 스페인 TV 방송과

의 인터뷰를 통해 "네이마르는 펠레처럼 교양이 없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메시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선수다. 네이마르가 메시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라도나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고, 이번에는 펠레 차례였다. 펠레는 22일 기자들

과 만나 "마라도나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니 나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마라도나는 나를 지나치게 좋아해 네이마르까지 걱정할 정도"라며 마라도나의 발언을 은근히 비꼬았다.

펠레는 이어 "나는 마라도나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그를 돋기 위한 이벤트도 참가했다.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섭섭한 감정도 드러냈다.

펠레와 마라도나의 감정싸움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펠레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로 선정했다. 인터넷 투표에서는 마라도나가 앞섰으나 축구 전문가들은 펠레를 택했고, 이때부터 '황제'와 '영雄'의 자존심 대결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남미 축구의 양대 산맥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볼세출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펠레가 축구황제라면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가 낳은 축구영웅이다.

이런 두 사람이 최근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24·FC바르셀로나)

와 '제2의 펠레'로 불리며 브라질 축구의 새 별로 떠오른 네이마르(19·산토스)에 대한 평가는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펠레가 네이마르를 입에 친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 언쟁의 발단이 됐다. 펠레는 지난 14일 브라질 리디오 글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메시

와 네이마르를 현 상태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이마르는 메시를 능가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마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유럽 리그로 이적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산토스에서 뛰면서도 메시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토스에서 활동한 펠레가 지금까지 축구황제로 군림하는 사실을 빗댄 말이다.

이에 대해 마라도나는 스페인 TV 방송과

의 인터뷰를 통해 "네이마르는 펠레처럼 교양이 없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메시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선수다. 네이마르가 메시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라도나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고, 이번에는 펠레 차례였다. 펠레는 22일 기자들

과 만나 "마라도나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니 나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마라도나는 나를 지나치게 좋아해 네이마르까지 걱정할 정도"라며 마라도나의 발언을 은근히 비꼬았다.

펠레는 이어 "나는 마라도나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그를 돋기 위한 이벤트도 참가했다.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섭섭한 감정도 드러냈다.

펠레와 마라도나의 감정싸움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펠레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로 선정했다. 인터넷 투표에서는 마라도나가 앞섰으나 축구 전문가들은 펠레를 택했고, 이때부터 '황제'와 '영雄'의 자존심 대결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박지성 홍콩 팬사인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시아 투어에 참가하고 있는 박지성이 23일 홍콩에서 열린 팬사인회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첼시 새 감독

34살 보아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부자 구단'인 첼시가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을 실현해줄 새로운 사령탑으로 34살의 젊은 사령관인 안드레 베이스 보아스 감독을 선택했다.

첼시는 22일(현지시간) 홀페이지를 통해 "보아스 감독과 3년 계약을 했다"며 "젊은 지도자 경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보아스 감독은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아스 감독의 정식 사령탑 경력은 2년에 불과하지만 2004~2007년까지 첼시의 스카우트와 전력분석관을 맡으면서 첼시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FC포르투의 사령탑을 맡아 지난 시즌 정규리그 무패 우승을 비롯해 UEFA 유로파리그와 FA컵을 모두 훙쓰는 지도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악물 의혹'을 털어낸 한국 마라톤 대표팀이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향해 다시 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정민화 감독을 비롯한 마라톤 대표팀이 27일 일본 홋카이도 삼포로로 2주간 전지훈련을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그동안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고 실전 감각을 다음을 계획이다. 그동안 강원도 일대에서 훈련해 오던 마라톤 대표팀은 금지 악물을 주사 맞고 뛰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부 선수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훈련장소에 경찰관이 나타나는 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민화 감독과 지연준 등 간판선수들이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23일 경찰이 마라톤 선수들의 금지 악물 투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의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낸 대표팀은 두 달 남짓 남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해 다시 운동화를 끌고 조여 매고 있다.

일본으로 가는 대표팀은 내달 1일 현지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2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고지대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7~8월의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강원도 횡계와 평창 일대를 달려 세계적인 척각들과 겨루를 강철같은 체력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기간에 자체 평가전과 기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10명의 남자 대표팀 선수 중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5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지난해 이미 대구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올해는 따로 현지 훈련을 하지 않고 대회 일정에 맞춰 결전지인 대구에 입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간접스럽게 터져 나온 '악물 의혹'을 털어낸 한국 마라톤 대표팀이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향해 다시 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정민화 감독을 비롯한 마라톤 대표팀이 27일 일본 홋카이도 삼포로로 2주간 전지훈련을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그동안 가라

앉은 분위기를 추스르고 실전 감각을 다음을 계획이다. 그동안 강원도 일대에서 훈련해 오던 마라톤 대표팀은 금지 악물을 주사 맞고 뛰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부 선수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훈련장소에 경찰관이 나타나는 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민화 감독과 지연준 등 간판선수들이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23일 경찰이 마라톤 선수들의 금지

악물 투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의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낸 대표팀은 두 달 남짓 남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해 다시 운동화를 끌고 조여 매고 있다.

일본으로 가는 대표팀은 내달 1일 현지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2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고지대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7~8월의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강원도 횡계와 평창 일대를 달려 세계적인 척각들과 겨루를 강철같은 체력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기간에 자체 평가전과 기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10명의 남자 대표팀 선수 중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5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지난해 이미 대구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올해는 따로 현지 훈련을 하지 않고 대회 일정에 맞춰 결전지인 대구에 입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테마시티 고장 질마재 100리길 장성 축제 6월 26일(일) 7시40분 전월동해태 마트 출발(8:00 광주역, 8:10 문예회관후문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 30분 무역 출발(4시30분 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

▲광주한국토요산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 6월 25일(토) 8시